

함평군, 치매극복 선도단체 함평문화원

환자·가족 안심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
전 직원 치매인식개선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

함평군은 치매관리사업 연계를 위해 함평문화원(원장 김창훈)과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서 전달 및 현판 부착 등 업무협약을 지난 달 26일 체결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치매 극복을 위해 지역사회의 노력에 다양한 사회 단체를 동참시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

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함평군 보건소는 2021년 치매관리사업의 적극적인 선도단체 활동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및 예방관리사업, 치매교육·홍보 활동 등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함평문화원은 올해 5월 전 직원이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했다.



함평군보건소와 함평문화원이 치매극복 선도단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보건소(보건소장 정명희)는 “앞으로 더 다양한 기관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여 치매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선도

단체와 적극적인 협업에도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무안군 운남면 지사체, 겨울철 취약가구 지원

복지위기가구 3가구 선정

무안군 운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종학, 박문재)는 지난달 25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3가구를 선정하여 방한·방풍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사업은 운남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며 협의체 위원들과 운남면 청년회(회장 기승서), 자율방범대(대장 김용환)는 동절기 한파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

다.
지난 한 달 동안 봉사자들은 훼손된 문 제작, 방풍장 설치 등 취약계층 주민들의 주거여건에 맞는 맞춤형 공사를 실시하여 겨울철 한파를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다.
박종학 운남면장은 “방한·방풍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년회, 방범대가 함께 힘을 모아 매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실시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추운 날씨에도 재능기부에 동참해주신 위원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나주시, 연말연시 나눔·봉사 훈훈한 지역 공동체

백미 기탁·김장봉사 등 온정 나눔 지속돼

나주시 동·면단위 마을 주민들이 연말연시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시에 따르면 문평면 주민 김영욱 씨는 최근 백미(10kg) 40포를 문평면 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나주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을 역임 중인 김 씨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영강동, 왕곡면 주민들은 새벽잠을 깨운 김장봉사를 통해 지역사회 온정 나눔에 동참했다.
영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박성락)는 지난달 27일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김장김치 300포기를 담귀 생활취약계층 70가구에 각각 전달했다.
지사협 위원과 통장단원, 동 직원, 자원봉사자 등 100여명은 지난 달 25일부터 올 한 해 정성 들여 가꾼 배추를 수확하고 김장재료를 함께 후원, 협력하며 나눔의 의미

를 더했다.
박성락 위원장은 “사흘 간 몸은 고됐을지 몰라도 지역 이웃들에게 맛있는 김장김치를 선물하고 싶었다”며 “맛있게 드실 분들을 생각하면 절로 흥이 난다”고 말했다.
왕곡면에서는 새마을부녀회원들의 분주한 손길이 이어졌다.
왕곡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곽정숙)는 코로나19 예방차원에서 지난 달 25일부터 사흘 간 10명씩 봉사인원을 나눠 김장김치 250포기를 장만했다.
곽정숙 부녀회장은 “쌀쌀한 날씨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에 동참해준 부녀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수 십 년 김장 경력의 부녀회원들의 손맛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감동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분위기에 활력을 더해주고 있는 주민들의 나눔과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연말연시 복지사각지대 그늘 속 소외감을 겪는 주민들이 없도록 총



총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기동취재본부

영암군, 갯년기(氣) 건강교실 운영

영암군은 중장년층(40세~60세)을 대상으로 12월 7일부터 12월 16일까지 한의약갯년기 건강교실을 2기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번 한의약 갯년기 건강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영암군 보건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갯년기 탈출’이라는 밴드를 개설, 선착순으로 대상자 신청접수를 받아 100여명을 모집한다.
모집한 인원은 1기(50명), 2기(50명) 2개 반으로 편성하여 갯년기 여성의 질병인식, 우울증 예방, 올바른 운동 방법 및 음식섭취는 물론 한의약 의료서비스도 제공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영암군 보건소 관계자는 “갯년기 증상은 중년기의 삶의 질 저하로 신체적인 노화와 함께 만성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하는 만큼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 유치면, ‘홀로어르신 생신상’ 전달

장흥군 유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면장 김안근, 공동위원장 안방오)는 지난달 27일 생신을 맞이한 지역 내 장수어르신 댁을 방문해 생신선물을 전달했다.
선물 전달과 함께 거주지가 어르신에 지내시기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살피는 등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했다.
생신을 맞은 어르신은 “외딴 곳에서 이웃에 의지해 살고 있는데 찾아와 주니 정말 기쁘다”며 방문에 고마움을 표했다.
김안근 유치면장은 “유치면 어르신들께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



내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외딴 곳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민관이 협력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